

최선 다한 후보들 “이젠 대천명”

광주·전남 격전지 8곳 표심잡기 총력전

4·13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광주·전남지역 최대 격전지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한 표를 호소하며 부동층 공략에 집중했다. 후보들은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으로 서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밤 늦게까지 유세전을 펼쳤다. 국민의당 후보들은 광주·전남지역에 불어닥친 ‘녹색돌풍’에 기대를 걸었으며 일부 더민주 후보들은 ‘지역구 투표는 더민주로, 비례대표 투표는 국민의당으로’라며 교차투표를 해줄 것을 호소했다.

국민의당 “거센 호남 녹색돌풍 기대”

더민주 “후보와 비례 교차투표” 호소

◇서구갑=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꺾고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온 더민주 송갑석 후보와 ‘안철수 호남 인재 영입 1호’인 국민의당 송기석 후보 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송갑석 후보는 “국민의당 돌풍이 불고 있지만, 현명한 서구갑 유권자들이 인물을 선택해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이에 송기석 후보 측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이미 승기를 잡았다”면서 “광주의 새로운 야당, 정권교체가 가능한 야당을 밀어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북구를=원외 인사들끼리 맞붙은 선거구로, 박빙의 승부처로 꼽히고 있다. 경합을 벌이고 있는 더민주 이형석 후보와 국민의당 최경환 후보는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동층이 20%에 가까운 만큼 부동층 행배가 주목된다. 이 후보는 “바닥민심이 우리 편”이라고 승리를 기대하고 있고, 최 후보는 “호남정치 복원과 야권재편을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의 바람이 투표로 이어질 것”이라고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광산을=6명의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더민주 이용섭 후보와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호남의 자존심을 지키는 ‘광주다운 선택’을 해달라”고 막판 지지를 호소하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고, 권 후보 측은 “선거 초반 크게 벌어졌던 지지율을 선거 중반에 뒤집어 안전권에 들어섰다”면서 막판 승리를 다지는 표 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여수시갑=더민주 송대수 후보와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 간 접전이 선거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송 후보 측은 “국민의당 바람이 정점을 찍고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어 간발의 차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후보 측은 “국민의당 바람이 선거 막판 강하게 불어 큰 격차로 이끌 것”이라고 자신했다.

◇순천=지역구 재선을 노리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측은 “지난 1년8개월은 너무 짧았다”며 “일할 능력도, 의지도, 비전도 있으니만큼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

다. 더민주 노관규 후보 측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은 채 승세를 굳혔다”며 승리를 자신했고, 국민의당 구희승 후보 측은 “순천의 넓은 정치 청산과 순천발전을 위해 기호 3번에게 투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광양·곡성·구례=4선을 노리는 더민주 우윤근 후보 측은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것은 새누리당 의석을 늘려주고 장기 집권을 돕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반면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 측은 “광양과 구례에서는 3선 피로감으로 이미 앞서 왔었고 곡성에서마저 국민의당 바람이 불면서 상당한 격차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남·완도·진도=더민주 김영록 후보와 국민의당 윤영일 후보가 혼전을 벌이고 있다. 최대 변수는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해남 민심의 흐름이다. 여기에 국민의당 바람이 선거 당일까지 부느냐도 관심사다. 완도 출신의 김 후보 측에서는 검증된 인물론으로 지역 구도를 넘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해남 출신의 윤 후보는 ‘변화’를 원하는 민심의 흐름이 이미 대세를 형성했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영암·무안·신안=더민주 서삼석 후보와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의 양강 구도에 새누리당 주영순 후보가 뒤를 쫓는 판세를 보여 왔다. 최대 변수는 신안의 민심으로 꼽히고 있다.

무안에서는 3선 군수 출신의 서 후보가, 영암에서는 3선 도지사 출신의 박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안 출신의 새누리당 주영순 후보의 신안 지역 득표율도 관심사다.

임동욱기자 tui@kwangju.co.kr /박지경기자 jikpark@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권은희 “시민 믿고 반드시 정권교체”



국민의당 권은희 광주 광산을 후보는 12일 천정배 대표와 함께 첨단종합복지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로지 광주를 믿고, 광산을 믿고, 시민 여러분을 의지해 야권재편과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후보는 공직선거법 논란 관련 “마지막까지 정치공세를 펼치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흡입대기 선거운동이 정치 혐오감을 양산하는 것 말고는 지역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논쟁일 뿐”이라고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이형석 “기호 2번만이 광주발전 선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광주 북구를 후보는 12일 “이번 총선은 국내 경제를 비랑 끝으로 내몬 정부에 대한 심판이지만 지역적으로는 광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 뽑는 선거”라면서 “기호 2번 더민주만이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마지막 유세를 마치면서 “광주 발전을 이끌어 내고 나아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이형석과 더민주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준영 “농어업 육성 군민과 약속 지킬 것”



국민의당 박준영 영암·무안·신안 후보는 12일 마지막 유세에서 “농·어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투표를 통해 호남정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 나가자”고 밝혔다.

박 후보는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고 IMF를 극복했으며 전남지사 10년의 경험과 중앙정부 행정 경험, 넓은 인맥을 심분 활용 호남 자존심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운명을 바꾸는데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더 나은 미래 위해 3번 선택을”



국민의당 김경진 광주 북구 갑 후보는 12일 “광주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 달라”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힘들게 살아가는 영세 상인, 청년, 빈곤 노년층, 내일이 불안한 보통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이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을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이용빈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원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주 광산 갑 후보는 12일 “정치신인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시는 광산구민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무능한 현역교체에 대한 광산구민의 염원과 새 인물의 기대들로 판세가 기울어졌음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군공항·광주공항 동시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지부진했던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를 원안대로 추진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KTX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갑석 “광주정신 알리고 실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 서구 갑 후보는 12일 “매순간 운명을 걸고 마지막 선거운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특히 “광주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광주학교를 세워 광주 역사를 알렸고 정치로 세상을 이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에 맞서 광주가 기다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라”면서 “제가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광주 정신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소금처럼 필요한 정치인 될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후보는 12일 선거운동 마지막날 유세에서 “소리에 해기를 바꿨다”면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 유권자와 지지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고 있다”면서 “‘소금처럼’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최진 유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대표와 최진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후보는 12일 광주 남구 서월동 무등시장을 방문, 지역청년유권자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삼성 전장사업 등의 유치’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문 전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청년경제구상을 통해 4년간 청년일자리 7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삼성 전장사업, 기아자동차 육성 등을 통해 청년일 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충행기자golee@

사전투표 역대 최고 이어 투표율 60% 벽 깰까

리서치앤리서치 설문 67% “꼭 투표”...부동층이 변수

4·13 총선 투표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표율은 선거판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1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율은 지난 1996년 15대 총선에서 63.9%를 기록한 이래 16대 57.2%, 17대 60.6%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18대 총선 때 역대 최저치인 46.1%까지 떨어졌다. 이후 19대 총선에서는 54.2%로 약간 올랐다.

일각에선 이번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처음으로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시행돼 사실상 투표일이 3일로 늘었다는 점이 투표율 상향의 전망을 밝게 한다.

지난 8~9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역대 최고치인 12.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적극 투표 의향층’이 대폭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만 19세 이상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 응답자의 66.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1~2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63.9%였던 것과 비교하면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이 소폭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1차 56.9%, 2차 58.1%) 보다도 높아진 수치다.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 이어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사전투표도 선거일 당일 투표할 유권자가 미리 투표한다는 ‘분산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의 지역단위 선관위에서부터 캠페인 및 홍보 광고 등을 이용해 마지막까지 투표 독려에 힘을 쓰고 있다”면서 특히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과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60%대의 최종 투표율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ikpark@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현장

홍진태 “업무비 공개 등 투명행정 실천”



더불어민주당 홍진태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12일 거리유세에서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수립과 집행 및 결산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여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공직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을 사전 점검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 재정·인사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교차 점검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비리 징후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혜령 “동구 재건 꿈 이루겠다”



무소속 양혜령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12일 “주민공천 후보로서 동구의 발전과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반드시 동구 재건의 꿈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 후보는 “이번 동구청장 재선거는 주민의 지지를 받은 양심세력과 소수 정치세력을 등에 업은 구태세력의 대결이었다”며 “동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은 잘못된 정당 공천을 심판하고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여론이 선거기간 내내 강하게 분출됐다”고 강조했다. /이충행기자golee@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분양아파트 할인분양

46형, 49형 20%할인 / 65형, 69형 30% 할인

- 최초분양가 7억9천만원 ~ 14억원 (할인분양가 6억4천 ~ 9억8천만원)
- 전세가격 약 5억5천만원 ~ 8억원(전세가 상승중)
- 대출 없이 2년 전세 놓으면 분양가 회복 가능

근린상가 NPL 매각

- 분양가 336억원(1771평), 채권최고액 330억원
- 전체 임대시 보증금 20억 월 1억5천만원 (현재 보증금 12억 차입 6300만원)
- NPL 할인매각가격 200억원

제척부지 NPL 매각

- 시세 및 채권최고액 270억원
- 하월곡 제1구역 시공사 선정(롯데, 한화컨소시엄)
- NPL 할인매각가격 120억원

에셋코리아 하월곡제일차 주식회사
상담 062)236-3400 · 010-2874-099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